

## 광주 '광천터미널·송정역·광주공항' 신종 코로나 무방비

하루 5만여명 오가는 관문에 '발열감지기' 조차 설치안 돼  
부천에서 감염자와 접촉한 여성 광주로 ... 지역내 감염 우려

하루 평균 5만여명이 오고 가는 광주광천버스터미널과 송정역·광주공항 등 광주의 주요 관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감염자를 선별할 수 있는 기초장비인 발열감지기 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공항과 한국철도 광주본부 등은 최근 광주시에 발열감지기 설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2·4·6·8면〉

지난 1일엔 관문이 뚫린 틈을 타고 경기도 부천에서 '슈퍼 전파 (감염)자'와 접촉한 20대 여성이 고속버스를 이용해 광주로 들어온 뒤 조선대학교 병원에 격리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역 내 감염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황은 의심환자·유증상자 15명, 능동감시자 2명, 중국 우한 공항에서 입국한 시민 15명 등 모두 32명이다. 이들 중 1번 환자 접촉자는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슈퍼 전파자인 12번 환자와 접촉한 20대 여성도 조선대학교병원에서 2차

례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광주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최근 CGV 부천역점에서 12번 환자 바로 옆자리에 앉아 영화를 관람했으며 이후 지난 1일 고속 버스를 타고 광주 광산구 비아정류장에 하차한 뒤 목감기 증상 등을 호소, 조선대병원에 격리됐다.

자칫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뻔했던 20대 여성의 동선이 드러나면서 광주시의 방역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5년 전국을 뒤흔든 중동발 감염증인 '메르스' 확산 때도 '슈퍼 전파자'에게 감염된 확진자를 비롯한 의심환자, 자가 격리자 등이 광천터미널을 통해 광주로 들어온 뒤 대학교와 식당 등을 누비고 다닌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광천터미널(하루평균 이용객 2만715명), 송정역(2만5030명), 광주공항(5550명) 등 주요 관문은 방역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1시께 방문한 광천버스터미널은 서울발 광주행 고속버스 등 전국에

서 출발한 버스가 속속 도착하고 있었지만 승객하차 전용 A, B, C 출구에는 어떤 방역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광천버스터미널은 유동인구가 많은 신세계백화점 등과 맞닿아 있어 중요 방역거점으로 꼽힌다. 비슷한 시각 광주공항과 송정역도 방역활동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용객 광주시장도 이 같은 사정을 의식한 듯 이날 오전 신종코로나 대응 추진상황 점검 긴급 회의를 열고, 기존 방역 재난대책지원본부로 시장이 본부장을 맡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는 한편 송정역 등 주요 관문 방역을 강화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지만 일선 공무원의 대처는 더디기만 하다.

광주공항과 송정역 관계자는 "매일 방역을 하고 손소독제 등을 배치하고 있지만, 감염증 의심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선 최소한 발열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구청 등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발열감지기 설치는 대당 2000만원이면 가능하지만, 문제는 하루 24시간 근무할 인력 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



조선대병원 열 감지센서 카메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이어진 3일 광주지역 선별 의료기관인 조선대학교병원 입구에 열 감지센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차관급,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회의를 열고 "지

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

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문재인 대통령 "신종 코로나 선제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상황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며 "얼마나 더 확산할지, 언제 상황이 종식될지 알 수 없다. 지금이 중요한 고비라는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경보는 현재의 경제 단계를 유지하되, 실제 대응은 심각 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망에 작은 구멍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철저한 역학조사와 추적관리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해 나가야 한다"며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국민의 자가격리 조치 등

에 대해서도 철저히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관광업 등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지원대책과 취약계층 마스크와 손세정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부에서 불안감을 이용해 불신을 퍼뜨리고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진정한 극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전남도, 과거사 진상규명·기념사업 지원 나선다

옛 전남도청 현판 복원 등 40주년 5·18행사 대대적 개최  
여수순천 10·19사건, 일제 강제동원 등 특별법 제정 전력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 5·18 민주화운동,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 도내에서 발생한 아픈 근현대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알려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5·18 기념행사를 확대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계획이다.

우선 도민이 주체가 된 5·18 4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전남 5·18민중항쟁 4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기념문화제, 창작예술 공연, UCC

공모전 등 도민이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는 행사가 준비 중이다. 옛 전남도청 현판 복원 설치, 5·18 사적지·기념시설물 지정·관리, 홍보영상 제작과 현장 순례 등도 추진한다. 당시 희생된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생계비도 계속 지원된다.

또 여수·순천 10·19사건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왜곡된 역사 바로 세우기,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희생자 추모와 위령사업, 유적지 정비 등도 펼칠 계획이다. 여수사건 추모와 위령사업,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족, 도의회, 학

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 지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국학술대회, 추모문화제, 역사교육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국회 방문과 건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현재 생존 중인 여수사건 유족 증언을 영상으로 기록해 피해자 조사 및 진상규명에 대비하고, 유족 간 소통과 화합을 위

소외계층, 마스크 보급도 '소외' ▶6면

오월, 역사에서 일상으로 ▶9면

굿모닝 예향-산업유산의 변신 ▶18·19면

한 워크숍과 제주4·3사건 역사현장 교류사업도 추진한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도 계속 지원한다.

정찬균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밑거름이 된 민중항쟁으로, 내실 있는 기념사업을 통해 정신을 계승해 더 나은 민주사회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 등 아픈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드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리스토퍼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리스토퍼: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